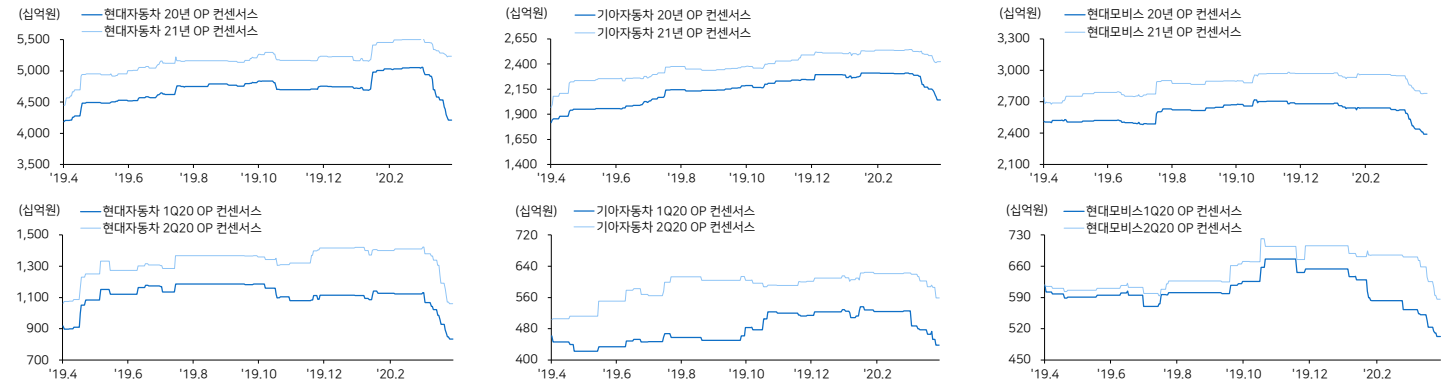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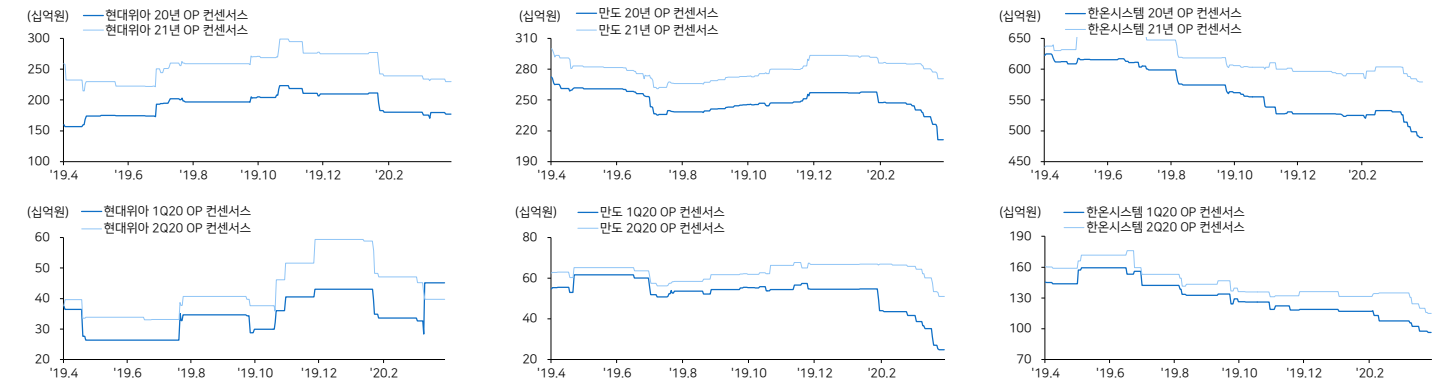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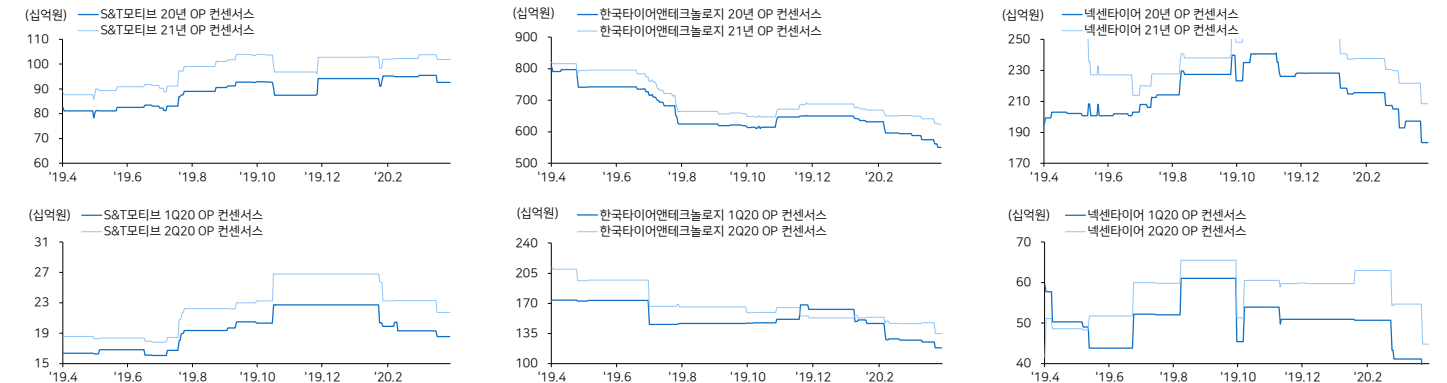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IBM, 현대차 '글로벌 ICT 센터'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정 (헤럴드경제)

IBM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ICT 센터'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 글로벌 ICT 센터는 클라우드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작년부터 준비해온 프로젝트다. <https://bit.ly/2JpuWvAj>

"현대차 러시아 공장, 코로나19 여파 가동 중단 연장"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의 가동 재개가 늦춰짐. 현대차 공장은 6일(현지시간) 낸 보도문에서 "현재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앞으로의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bit.ly/3b0HGCE>

자동차산업협회, 후업계·금융기관 1차 미팅 개최...코로나19 대응 (아이뉴스24)

자동차산업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통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미팅을 개최.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업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 <http://www.inews24.com/view/1256383>

닛산 2만명·혼다 1만명 구조조정... 日 자동차업계 '금융위기급' 감원 (조선비즈)

닛산과 혼다가 앞다퉀 1만명~2만명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닛산은 미국 공장의 1만명과 영국 공장 6000명, 스페인 공장 3000명 등 약 2만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일시 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https://bit.ly/2JNnzJK>

수출길 막힌 현대차, 투싼 만드는 울산 공장 '셋다운' (조선비즈)

현대차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준중형 SUV 투싼을 생산하는 울산 5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 8일 현대차에 따르면 투싼을 생산하는 울산 5공장은 오는 13~17일 휴업에 들어감. <https://bit.ly/2VeyotB>

현대차 브라질 공장 26일까지 셋다운 연장 (IT조선)

현대차 브라질 공장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가동 중단 기간을 연장. 브라질 현지 언론 피라노트에 따르면 현대차 브라질 피라시카바 공장은 가동 중단 일정을 26일로 연장. <https://bit.ly/2JPZIsX>

美 자동차업계 "5월부터 공장가동 가능" (IT조선)

미국 완성차들이 생산 정상화는 5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당초 이르면 4월 하순 생산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생산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https://bit.ly/3b0HlxY>

지난해 지구 7바퀴 달린 차 자율주행차 (한국경제)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의 중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국 기업들이 급부상하고 있음.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첨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s://bit.ly/3e8m9nI>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